

'종이의 물질성'을 주목해야

《나쁜 어린이표》와 《풍경》의 예

한기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세계 56개국을 여행한 한비아는 해남 땅끝에서 민통선까지 800km에 이르는 우리 땅을 49일간 두 발로 걸어다니며 만난 우리 땅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람의 딸, 우리 땅에 서다》(푸른숲)라는 한권의 책에 담았다. 한발짝 한발짝 걷는 고난의 노동을 통해서 그는 '한걸음의 철학'을 찾아낸다.

비행기를 타거나 냉난방이 잘된 차를 타고 해낸 여행에서 얻어낸 철학과 도보를 통해 얻은 철학은 내용상 같을 수는 있지만, 그 깊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차이는 인터넷에서만 한번의 클릭으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검색하는 것과, 독서라는 '신체적인 수련'의 과정을 통한 읽기의 차이와 비슷하다. 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의 액정화면을 통해서 이뤄지는 교육과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직접 만나 이뤄지는 교육의 질적인 차이와도 같다.

촉감세계의 가치 재조명해야

인터넷을 통해 1대 1의 맞춤교육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실제적으로 도래한다 해도 학생이 문제를 직접 고민하며 풀지 않으면 진정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처럼 책장을 손으로 직접 넘겨가면서 줄을 치거나 주요한 부분을 옮겨 적으며 읽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읽기가 아니다. 여기서 새롭게 발견된 것은 바로 인간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지는 '신체성'이다. 이것은 디지털 때문에 새롭게 발견된 아날로그 세계, 그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접 만지고 넘기는' 과정에서 느끼는 촉감세계에 대한 새로운 주목이다.

이 촉감세계는 물질성과 상동적인 관계에 있다. 책의 물질성은 활자가 인쇄되는 종이의 발견

을 통해 구체화된다. 종이의 성질·종류·색깔 등과 잉크의 질에 따라 책의 물질성은 개발견된다. 4도의 인쇄판과 종이의 다양성이 만나 새롭게 결정되는 색을 통해 인간이 느끼는 문화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매체인 책이 살아남는 구체적인 방안일 수 있다. 인간은 책을 신체적으로 한장 한장 넘기면서 찾아내는 감동과 그 감동을 내면화해 가는 과정에서 크나큰 즐거움을 누린다. 이것은 결코 편리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 문화의 기본적 속성이다.

일본의 철학자 구로사키 마사오는 최근 한 좌담(〈이과(理科)의 '읽다'와 문과(文科)의 '읽다'—후편〉, 《책과 컴퓨터》 2000년 겨울)에서 구텐베르크 테크놀로지가 낳은 서적에 의해 처음으로 성립된 문화나 학문, 교양은 서적이 사라짐과 동시에 그 생명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적에 의해 성립됐던 제도를 전자화하려 들겠지만, 실은 전자화되자마자 이 제도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것이다. 물질에서 벗어난 정보에는 가격을 책정할 수 없는데, 매매를 할 수 없는 인터넷에서 의욕이나 에너지가 나올 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양한 종이 사용으로 새로운 가능성 열어

웅진출판의 《나쁜 어린이표》는 선생님한테 잘못을 지적받고 '나쁜 어린이표'라는 딱지를 받을

때마다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주눅든 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동화책이다. 웅진은 주인공의 심리적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 미색모조 120g을 사용하려 했으나 마침 미색용지를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백색모조를 사용하되 미색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모든 페이지에 y(노란색)판을 20% 올리기로 했지만 누리끼리하기만 하고 제대로 효과가 나지 않았다. 그

렇다고 y를 더 올리자니 그림효과가 떨어져 k(머색)판을 2%를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5%미만은 인쇄판 자체가 촬영되지 않아 인쇄소에서 일방적으로 먹을 더 올려버렸다. 그런데

막상 책이 나오고 보니 전혀 새로운 종이를 사용한 것처럼 보였다. 결과적으로 색깔에 변화를 준 것이 글과 그림과 종이색이 잘 어우러지게 됐다. 이 책은 한 조사에서 '어린이서점이 추천하는 책' 1위에 뽑히기도 했다.

이래가 작년 8월에 출간해 대형베스트가 된 《풍경》(원성)은 한국제지가 개발한 M매트란 새로운 용지를 사용했다. 이 용지는 컬러인쇄가 너무 가라앉아 버리는 스노우화이트지와 반짝이는 질감이 너무 올라온 아트지 그리고 가독성이 떨어지고 뻣뻣한 질감을 주는 기존 용지들을 보완, 수정해 좀더 따뜻하면서도 컬러의 질감과 원화를 최대한 살려내고 있다. 동자승의 순수한 눈을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는 맑은 샘물 같은 이미지가 잘 드러난 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종이 덕이었다.

우리가 종이라는 장(場, ground)에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디지털과 차별화하는 매우 실천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여전히 대량생산된 종이를 획일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요받고 있지 않은가?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금년 1월말로 신청이 마감된 7차 교육과정에 교과서를 신청한 출판사들은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 효과를 살리기 위해 종이를 다양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교육체계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아온 출판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감케 하는 조짐이 아닐 수 없다.●

